



만나고 싶었습니다



비정규직여성문제 상담의 대모

황현숙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2002년 8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772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6.6%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자 열 명 중 여섯 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세 명 중 두 명 이상인 70.7%씩이나 비정규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사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2등 국민인가!' 라는 자조적인 한탄과 불만이 나오는 이

유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의 억울함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

### 비정규직은 2등 국민인가

이 달에 만난 사람은 법적인 보호는커녕 오히려 불균등한 처우가 당연시되고 있는 비정규직여성을 위하여 따뜻한 가슴으로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상담해 주고 있는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이하 서울여노) 부회장이다.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여노 사무실에서 그

녀를 만났다. 여성노동자조직에서 상담의 대모로 불리는 그녀는 4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삶의 절반 이상을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해왔다. 뜻밖에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녀를 대하며 문득 떠올린다.

‘왜 이런 고된 삶을 선택했을까?’

이러한 의문은 대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풀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수녀가 될 것을 권할 정도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났다. 이런 종교적인 교육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감과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의 형성에 깊은 자양분을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린시절부터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종교적인 헌신으로 받아들였다. 일례로 초등학교 시절, 그녀는 유관순의 전기를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유관순 열사를 종교적인 순교자와 동일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1년 남짓 동방생명(현 삼성생명)을 다닌 노동자로서의 경험이 이후에도 소외된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상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된다. 황부위원장은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1981년에 교육학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대학 입학 후에 야학 활동을 하며 노동자들과 만나면서 보다 깊은 사회인식을 갖게 된 그녀는 교육자로서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1983년부터는 아예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부천지역에 있는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투쟁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1986년에 서울의 대한광학에서 해고투쟁을 하고 있던 그녀는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있었던 박영진열사 관련 농성자들의 재판정에서 법정 소란죄로 구속되어, 1986년 6월부터 6·29 선언이 있었던 날까지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다. 출소 후에도 곧 바로 민주화운동에 복귀하여 활동을 했는데 87년 대선 정국의 와중에 있었던 ‘구로구청 사건’ 때 구로구청 옥상에서 현장을 지키다, 또 다시 구류를 살게 된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그녀는 당시 유행(?)하던 복학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다시 봉제공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해고투쟁과 감옥생활에서 겪었던 폭행과 고문의 후유증은 더 이상의 공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즈음에 결혼을 하고, 그 후 구로노동상담소에서 이제는 그녀의 전공이 되어 버린 상담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여성들만의 문제를 인식하게 돼

1990년에 첫 아이를 낳은 후, 그녀는 또 다른 커다란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 전에는 굳이 나까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생각했던 그녀는 육아와 사회활동을 병행하면서, 같은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엄마들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여성들만이 갖는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내 그녀는 1994년부터 서울여노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와 전국여성노조가 2000년에 공동으로 발족시킨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

1995년에 서울여노에 '평등의 전화'가 개설되면서, 그녀는 다시 상담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들어온 상담내용은 주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였다. 워낙 절박한 문제들이어서 여성 차별문제는 다룰 수도 없었다. 1999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그녀가 상담을 해서 받아낸 체불 임금만도 5~6억원에 이른다.

2000년은 파견법 시행 2년이 되는 해였다. 파견노동자로 2년 이상 일하게 되면 사용업체는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을 피하기 위하여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특히 여성들에게 새로운 커다란 시련으로 다가왔다. 이에 발맞춰 서울여노가 속해 있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비정규직 여성 권리 찾기 운동본부'를 2000년에 발족시키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는 상담의 주요 내용을 비정규직문제로 바꿔 놓게 된 것이다.

5월 1일 노동자의 날의 전야제가 2001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대회'가 되었을 정도로 비정규직문제는 가장 심각한 노동계의 현안이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겪어왔던 그녀는 "우리 사회

일부에는 이제 한국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사회의 약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런 견해는 "전체 노동자의 56.6%가 비정규직이고, 1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도 정규직이라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도 1,0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2등 국민'으로서의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황을 간과하는 데에서 오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2년 현재,

정규직의 52.7%이고 비정규직 다섯 명 가운데 한명은 월평균 50만원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79~95%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22~25%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정규직은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을 77~93% 정도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0~14%만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불평등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을 위하여 그녀는 오늘도 전화 앞에서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 노동자들의 아픈 마음 함께 하고파

20여 년 동안 노동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그녀는 아직도 비정규직노동자의 가슴 아픈 사례를 접하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적당한 순간에 상담을 끝내야 함에도, 상담자의 아픈 사연을 같이 고민하다 보면 그럴 수 없어 긴 시간 동안 상담하게 되고,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간혹 그녀가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녀는 노동자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정규직여성들이 최저임금을 더 받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녀 자신은 작년까지도 최저임금(월 514,150원)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를 받아왔다. 올해에서야 비로소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약 7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

래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편이 자신의 사회활동을 줄여,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단다. 남편 역시 전념을 다해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데도, 두 딸과 그녀를 위해 활동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 간혹 불만을 털어놓기도 한단다.

그들 부부 역시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는 것이 과연 딸들에게 좋은 일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그녀와 남편이 바라는 것은 두 딸이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이라 말한다.

### 다시 산다 해도 똑같은 삶을 선택할 것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해 온 사회활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지만, 그렇다고 어찌 아쉬움이 없었겠는가. “멀리는 못 봤지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애는 써왔다. 작은 성과는 많지만 잘 모르겠다...” 그녀의 말 속에서 절제된 자부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깊이에서 나오는 수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그녀가 친정가족에 대해서 한 말은 긴 여



운을 남겼다. “돌이켜보면 집안이 어려웠는데, 전체 민중의 아픔을 함께 한다며 가족을 외면했다는 자책감이 나를 괴롭히곤 한다. 특히 어려운 형편의 가족을 부양한 큰 오빠와 올케에게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있다... 인생을 다시 산다고 해도 똑 같은 삶을 선택하겠지만, 가족에 대한 마음과 자세는 아주 다를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자위가 붉어지고 있었다.

도덕과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무참히 유린당하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나 헌신을 쓸데없는 이상주의자들의 환상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권력에 줄을 서거나, 개인의 행복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어제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도덕과 현실 사이에서의 긴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거나, 현실에 의해서 유린되는 도덕과 정의에 대한 슬픔과 비애의 감정조차 지니지 못할 정도로 축소된 영혼의 소유자들은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황현숙씨가 걸어온 길이 거친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선율과도 같다고 표현한다면 지나친 것일까?